

1996년 제안된 UIA 협약에 따르면 건축실무를 할 수 있는
건축가(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 교육제도 및
교육수준의 인증, 실습(인턴), 자격시험, 등록, 재교육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약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인증위원회(NAAB)가 정한 선구설계에 관한 전문학위로
5년 과정의 건축학사(B. A.)와 3년 과정의 건축석사(M. A.)가
있다.

국제화시대의 건축가 교육

Professional Education Toward Architectural Design

1. 서문



윤 승 중
건축가/원도시건축

대학 입시 과정에서 건축관련학과가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곧 우리 나라의 건축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건축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축교육의 개선을 심각하게 논의하여 왔으며, 그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법에는 합의가 없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제도하에서는 적극적인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다.

건축교육은 건축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필요한 투자이다. 특히 지금처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환기적 변화가 요구되며, 앞으로 국제화가 전제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교육, 특히 건축가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더구나 UR체계의 성립으로 건축 실무부문뿐 아니라 교육분야까지도 개방되어야 하므로 건축교육의 구조적, 질적인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WTO체제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제도와 전문자격제도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2. 교육개혁을 위한 구조조정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교육의 근본목표인 창의성 계발과 자율을 강조하는 매우 전향적인 교육개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심각한 과제인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의 자율적 방법에 위임하는 등 적극적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자율성과 선택성의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계열별 통합이나 복수전공제를 도입하면서 전공필수학점을 절반 수준인 36학점으로 낮춘 것은 오히려 건축설계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성의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한다.

최근 교육부는 이처럼 전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교육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복수전공제와 함께 몇 개 학과를 통합한 학부제에 의한 모집단위 조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이 체도를 수용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으나 이제까지 건축교육의 특수성을 내세워 다른 학과와의 통합을 반대해온 다른 대학들에게까지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건축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큰 흐름을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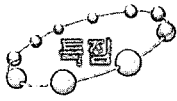
로 제기된다. 교육부의 이런 개혁정책은 이제까지 각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세분해 놓은 학문 단위들을 구조조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케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도 인정하듯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자격기준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가 예외인 것처럼 건축가 교육은 당연히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타 학과와 통합하여 학생을 모집한 대학들에서는 사후에 대부분이 건축전공으로 집중되어 학문간의 균형이 깨어지는 문제들을 겪고 있다. 또한 36학점으로 건축설계의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를 받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건축학과의 인기도에 편승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10개 대학에 180여 학과가 개설되어 모집정원 상으로는 연간 약 95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있으며,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를 감안하면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건축교육에 너무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건축학위의 인증제도

이제까지 우리의 건축교육은 건축가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총체적인 기술교육에 통합되어 있다. 건축교육이 공과대학에 속하게 된 것은 일본의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을 문화적 예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건설기술의 한 분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건축가를 지향하는 설계교육 프로그램이 건축교육의 중심이었으며, 건축공학교육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UR체제가 요구하는 개방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자격 제도와 연계되는 건축설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큰 변화가 필요함을 뜻한다.

각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건축가를 지향하는 설계교육 프로그램이 건축교육의 중심이었으며, 건축공학교육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UR체제가 요구하는 개방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자격 제도와 연계되는 건축설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큰 변화가 필요함을 뜻한다. 환언하면 국제적으로 검증된 교육제도와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제적 개방시대의 패배자가 됨을 의미한다.

UR체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의 근거가 되는 '기본합의서'는 상호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우선 수혜국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의 표준 등과 함께 전문자격 요건 등이 구체화될 것을 규정하고, 면허와 자격증을 상호인정하는 당사국간의

협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각 나라간의 교육제도와 면허기준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세계건축가연맹(UIA)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 학점제도, 등록 및 면허제도, 윤리요강,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건축이 일반적인 자유경쟁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적, 인간적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6년에 제안된 UIA 협약에 따르면 건축실무를 할 수 있는 건축가(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 교육제도 및 교육수준의 인증, 실습(인턴), 자격시험, 등록, 재교육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가 교육은 외부의 독립기관으로부터 최소한 5년 간격으로 '인증'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5년간의 전문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참고로 이 기준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미국의 경우, 공식 건축학위 인증기관인 미국건축인증위원회(NAAB)가 정한 건축설계에 관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로 5년 과정의 건축학사(B. A.)와 3년 과정의 건축석사(M. A.)가 있으며, 실제 스튜디오에서의 1대1 수업을 포함하여 60%이상을 전공필수 과목에서 이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각 대학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마다 NAAB의 인증을 획득해야 전문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교육 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건축가 교육의 방향

앞으로 WTO체제에 따른 개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건축교육, 특히 건축

가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구조적,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정책 당국에 기대하기에 앞서 건축계 스스로 합의를 이루어 이끌어가야 할 일이다. 여기에서 특히 '건축가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을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대학들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거의 종합적인 건축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 전반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하며(전체 1/40, 설계 1/74 - '93) 특히 설계교육을 위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 공과대학에 속해 있어서 학생 선발이 자연과학 기준으로만 평가된다. 특히 외국처럼 장차 건축가로서의 소양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 외국에 비하여 전공분야를 위한 이수 학점이나 교육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특별히 설계교육시간이 부족하다.
- 도시, 실내 등 인접분야간의 연계와 협력 등 상호보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 설계 담당교수들이 실무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적고 교육과 실무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상 열거한 부정적 요소들을 뒤집어 놓으면, 대체로 바람직한 건축교육, 특히 건축가 교육의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건축교육의 문제들은 이미 각 대학이나 단체들의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조사와 대안들이 거의 제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것을 실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하여 실천하는 일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선 각 대학들이 교육목표를 특성화하여, 다양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설계 스튜디오를 통한 좀더 수준 높은 건축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몇몇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위한 모색과 실행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제도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제도와 같은 객관적 평가의 수단이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프로그램 교류 또는 건축콩쿠르나 최근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사적 교육강좌 등과 같은 대학외적인 프로그램들이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